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합시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최 욱 환

지난 겨울은 근래에 보기 드문 추운 겨울이었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온 세상은 눈으로 뒤덮이고 대자연의 활동은 마치 정지하여 쉬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눈 속에서도 보리 싹은 눈을 뚫고, 시냇가에 버들강아지는 파릇한 눈망울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주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상에 보내신 목적 중의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지상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힘써 일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오래 참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 살며,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에워싸고,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가시밭길이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를 섬겨야 합

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택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신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주를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으로 작은 일에 충실하고 의에 굽주린 자가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인 가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용기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몇 가지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는 경륜의 시대입니다. 먼 곳에 목표를 정하고 걷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의 날은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며, 지상 생활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가 좋은 옷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지녀 선악을 판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썩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저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라”(마태복음 13: 24-30)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루하루의 결산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잘 준비하고 새로운 목표와 고결한 이상과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겠습니다. 생명의 떡 보다는 화덕 속에 든 떡에 관심이 있고 생명수 보다는 우물 안에 관심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겠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를 회

개하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잘못을 보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씻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스러운 행위를 그리고 장차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로써 그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범한 과오를 스스로 보상할 수 없다면 누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의 죄는 깨끗이 씻기우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분홍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예언자입니다. 1973년 3월 8일 대관장님께서 손수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시온의 서울 스테이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후로 이 땅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땅은 위대하고 영화로운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어느 땅보다도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회피된 과거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영화롭고 화평한 미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백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외적의 침입이 없게 하시며 이곳이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인 거룩한 신전이 서게 하시어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50년간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의 임무를 수행한 형제들



스나이더 형제(좌), 브라운 형제

72세인 에른스트 엘 스나이더 형제와 71세인 에드윈 에스 브라운 형제는 어김없이 매달 가정 복음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러 나간다. 그들이 50여년간 동반자로 일해 왔다는 것 외에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반세기여 걸쳐, 그들의 임무는 구역 교육, 와드 교육, 가정 복음 교육 등의 명칭으로 바뀌어졌으나,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함께 지명받은 가족을 돌보았다.

두 사람은 한 평생 솔트레이크 파ियो니아 스테이크의 포퍼러 그르브 와드에서 살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고등 학교에 다녔으며, 에드 브라운은 다소 비활동적이었고, 어니 스나이더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교회 구기 팀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기도 했다.

스나이더 형제는 1930년에 교회에 속했다. 그는 구역 교육의 임무를 지명받았고, 그의 비활동 친구를 맡게 되었다. “어니는 내가 비활동 회원으로 지내는 동안 나를 끌다시피하며 데리고 다녔어요.” 브라운 형제가 말했다.

그들은 현재 주로 노부부나 과부들을 방문한다. 어느 때인가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젊은 가족을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일도 있었다. “우리는 방문하면서 곤란을 겪은 일은 없으며, 어디서나 영접을 받았습니다.” 스나이더 형제는 말했다.

“짧게, 반갑게, 메시지만 남기고 떠나자.”라는 것이 그들의 표어였다. 그들은 비행장에 나가 사람들을 차에 태워 주는 일이며 강도의 위협에 떠는 노부부의 공포심을 무마시켜 주는 일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우리는 병자 축복도 많이 했습니다.” 스나이더 형제는 말했다.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받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도 똑같이 도와 주고 있다.

스나이더 형제가 1940년대 초에 와드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독으로서 나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나 자신은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지명할 권능이 있네.” 그래서 그들은 스나이더 감독이 부름받은 8년 동안 함께 일했다. 1970년대에는 브라운 형제가 감독으로 부름받아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감독이었을 때 우리가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니, 내가 감독이 된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동반자가 될 수 있지.” 브라운 감독도 8년간 일했으며, 1년 전에 해임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정년 퇴직을 했다. 그들은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제 와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하고 그들은 말했다. *

한국과 일본 지역 선교부장 세미나

지난 12월 8, 9일 양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에서 선교부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의 주 연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였으며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며 일본과 한국의 전 선교부를 관리하는 지역 관리자인 요시히코 기꾸지 장로도 참석하였다. 2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12명의 선교부장 내외는 롯데 호텔에서 베풀어진 연회를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마쳤다. 이 연회에는 서울 지역 스테이크 부장 내외와 한국 지역 대표 내외가 초대되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선교 부장은 다음과 같다.

동경 남 선교부의 디 리 그로버그, 오카야마 선교부의 로이 오까모도, 삿쵸로 선교부의 도루 호따, 고베 선교부의 고든 포터, 나고야 선교부의 겐이찌 사가라, 후쿠오카 선교부의 로이 아이 트수야, 동경 북 선교부의 마이클 에이 로버츠, 센다이 선교부의 기요시 사까이, 오사카 선교부의 시게키 우시오 등 9명이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선교 부장은 이 호남 선교부장, 김 차봉 선교부장, 디 브렌트 클레멘트 선교부장이었고 이 모임은 서울 선교부가 주최했다.

행스 장로는 이 모임에서 "긴 안목을 갖고 일하라"고 권고하였고,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하며,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침례 전격 작전을 펴기가 쉬운데 이러한 일은 언제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였다. 선교사들은 확고한 간증을 가진 개종자 곧 튼튼한 토대 위에 교회를 건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

들을 개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꾸지 장로는 1980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행해진 위대한 선교 사업의 성취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그는 김볼 대관장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만 한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1981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교회 지도자는 십일조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다음의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게 된다. (1) 회원 중심의 선교 사업 (2) 가정 복음 교사에 의한 재활동 촉진 (3) 계보 및 신전 사업 (4) 지도자 훈련. *

서울 지역 신권 지도자들 신년 교례식

지난 1981년 1월 4일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에서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4개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신년 교례식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서울 서 스테이크의 김 창선 부장,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서울 북 스테이크의 홍 무광 부장이 차례로 신년 계획과 간증을 하였다.

이날 모인 신권 지도자들과 부인들은 한 인상 장로의 사회로 일일이 자기 소개를 하였으며, 오랫동안 만난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다. 1981년에는 회원 모두가 선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한 가정을 교회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며 교례식을 끝마쳤다.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지난 1980년 12월 7일 서울 동 스테이크 제 1와드에서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토요일 모임을 모두 일요일에 가졌다.

이른 아침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한 인상 장로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하여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했다.

성인 모임에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받은 민 경욱 형제는 “우리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역설하며 “4대 프로그램”과 “개인 및 가족 일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했다. 일반 총회에서는 교회 본부 청남 역원인 브케너 형제 부부가 참석하여 간증하였고, 이어서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이 80년 한국 대회 때의 간증과 동경 신전 헌납 모임에서 느낀 영적 분위기를 전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박 재암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최 동현 형제는 서울 서 스테이크 시흥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고등 평의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 우영 형제도 동경 신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느낌을 간증으로 전하였다. *

광주 스테이크 배구 대회

지난 1980년 11월 8일 광주 스테이크 제 1와드에서 스테이크 창립을 기념하는

배구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인 형제들은 배구 시합을 하였고 자매들은 피구를 하며 스테이크 창립을 축하하였다.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1980년 10월 25일 오후 7시에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형클리 장로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광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66년 9월이었고, 1967년 11월에 광주 지부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1971년 2월에는 지방부가 조직되었으며 9년 만에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광주 스테이크 부장으로는 박 병규 형제가 부름받았다. 박 형제는 현재 광주 신학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방부장으로 일해 왔었다. *

서울 스테이크 제 5회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에서는 지난 1980년 12월 20일 제 4와드에서 제 5회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의 김 종열 부장의 감리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8개의 와드와 지부의 어린이들이 교사와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였다. 합창, 연극 무용, 리듬 합주, 피아노 독주, 그리고 태권도 시범 등을 통하여 평소에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영동 와드의 어린이들이 발표한 연극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네”는 많은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찬조 출연으로 성남 와드의 김 문정 어린이의 장고 춤과 잠실 와드의 김 병유 어린이와 닉키 클레멘트 어린이의 크리스마스 캐럴 독창이 있었다. *